

# 민주 전남지사 후보들 경쟁적 정책공약...표심잡기 '총력전'

전남도지사 출마예정자



김영록                      신정훈                      장만재

\* 왼쪽부터 가나다순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 왼쪽부터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장만재 전 전남도교육감 (가나다순).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는 등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10일 한전 공대 나주유치 등 9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전 공대는 나주에 유치해 전남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면서

한전 공대를 미국의 MIT, 중국 칭화대와 같은 세계적인 공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이자, 환 서남해안권 시대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무안공항은 지난해 연간 이용객수 29만8000명으로 비슷한 여건인 대구공항 356만명의 10분에도 미치지 못해 국제공항이라고 일컫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면서 "국제정기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뛰고 활주로를 3200m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 장성에 권역별 심비혈관센터 총괄할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 해남·영암에 고품질 시설원에 생산시스템 구축 ▲ 해양

경찰청 제2경비창 목포에 유치 ▲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조성 ▲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화순 국가생물의약집적단지 확대 조성 ▲ 광주~대구를 잇는 동서내륙 철도 건설 적극 협력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장만재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선

김영록, 한전공대 나주유치

장만재, 100원 행복 5대 공약

신정훈, 무안공항 활성화 등

거대책본부도 이날 '100원의 행복 마을' 등 전남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은 ▲무상교육과 100원의 행복마을 건설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로 통일 농정 준비 ▲신재생 에너지를 전남의 대표 산업으로 ▲동부권 산업 재편 ▲생물의약산업벨트 등 100세 시대 준비 등이다.

장 후보는 "어르신들을 위한 100원의 행복마을을 실현하는 한편, 청년들을 위한 1만원 임대 주택 500

호를 건설한다"면서 "전남의 쌀과 복합의 회토류 등 소중한 자원을 바꾸는 구상 무역을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식물을 도입하며 스마트 팜 조성을 위한 청년 농부를 육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 동부권의 경우 여수 산단을 미래 석유화학 소재 특화 창의혁신 산단으로 조성하고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경량 소재산업 및 탄소밸리를 구축하며, 고흥에 우주과학 산업단지 및 드론 집적단지를 조성한다"면서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장성~화순~장흥에 생물의약 산업벨트를 조성해 100개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전남 SOC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 광주·나주 혁신도시권과 순천, 여수, 목포 등 전남의 주요도시를 철도망으로 연결하며, 전남교통공사를 설립해 여객선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무안공항에서 광주-진주 부산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철도(KTX)를 추진, 광주~부산간 교통망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해 남해안 인구 2000만의 경제적 동반성장과 함께 영호남 대통합을 도모하여 신해양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신 후보는 또 "지역내 시외버스 주요노선과 여객선,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남교통공사를 설립해 지역 맞춤형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하겠다"며 "시외버스와 철도노선의 상호연계를 통한 역할분담을 통해 버스 보조금을 절감하고, 정부의 여객선 현대화사업 등을 우선 유치해 안전한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 靑,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가능성에 "논의할 것"

다음달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가능성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

선과 2017년 19대 대선 후보시절 노 인복지 공약으로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내건 바 있다.

올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일 일요일, 7일 대체휴일에 이어 8일까지 나흘 연속 황금연휴가 이어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전례가 있다. 10월2일은 월요일로 이날이 개천절이고 곧바로 추석연휴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긴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그해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돼 재가했다.



사법개혁특위 간사회동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장재원(왼쪽부터 시계방향)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정의, 박병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 회동을 하고 있다.

## "튀어야 산다" 출마자들 네이밍-직함 전쟁

6월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고 여권의 경선주자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유권자와 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네이밍과 직함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10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여당을 중심으로 컷오프와 경선 인문사 여론조사 등이 임박하면서 표심을 자극하는 네이밍과 직함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한 네이밍에 승부수를 던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앞두고 중앙당에 제출한 직함도 강 후보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과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양 후보는 전국 여성 위원장과 중앙당 최고위원을, 이 후보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여론조사용 대표경력으로 제시했다.

모 후보 측 관계자는 "5자로 제한해 고심 끝에 두 가지 경력을 선정,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 지지도 높은 대통령 이름을 사

동구청장에 출마한 민주당 임택 후보는 변화의 시작, 선택은 임택'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강신기 후보는 '이무도 본 적 없는 동구가 열린다'며 영화 '신과 함께'를 패러디한 '신기와 함께'를 포스터로 제작해 화제가 됐다.

광주 서구 광역의원에 나선 주경민 후보는 일하며 대학과 대학원을 마친 삶의 궤적을 담아 '주경야독'을 강조하고 있고 명진 예비후보는 '명' 풀 광주를 만드는 '진' 풀 후보'라고 자신을 알리고 있다.

광주 서구 기초의원 출마한 민중당 이대행 후보는 민원 대행이라는 글귀로 풀뿌리 자치 일꾼의 이미지를 심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여권은 후보가 난립하면서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야권은 후보난이 심각해 전에 없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보니 네이밍과 직함도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며 "인생스토리와 특장점이 함축되면서도 짧고 강렬한 슬로건은 자연스레 유권자 표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1자리2용섭', '최·강·민·주', '항자날자'

영화패러디·이름 활용 기발한 슬로건도 홍보

이용섭 후보는 '1자리·경제시장 2용섭의 12대 공약'이라는 정책 네이밍으로 경제시장으로서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강조했다.

강기정 후보는 단일화에 합의한 세 후보인 '최영호·강기정·민행배'에 '민주'라는 단어를 더한 '최·강·민·주'로 3자 단일화 효과와 정체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삼성 고품질 신화'의 주인공에서 '광역단체 첫 여성시장'을 꿈꾸는 양향자 후보는 자신의 이름에 빗대 '항자, 날자'라는 슬로건으로 '뜰뜰과 비상(飛上)'을 꿈꾸고 있다.

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후보인 김영록, 장만재 후보 간에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광주 북구청장에 출마한 문인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인지도 확산을 위해 '문재인에서 '재'를 빼면 문인'이라고 한동안 '문재인 마케팅'을 활용했고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은 이름이 주는 어감을 이용해 '상필, 필승'을 외치고 있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특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